DOI http://dx.doi.org/10.22957/mses.11..202207.1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사 교육의 의미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탐색

곽희정 ·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목 차》

1. 들어가기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2.2. 자료수집과 분석
3. 연구결과
  3.1. 한국사 학습의 목적
  3.2. 한국사 학습의 장벽
  3.3. 한국사 학습의 의미
4. 결론

<Abstract>
Kwak, hee-jeong · Kim, ock-nyu. 2022. 07. 30. **Exploring Meaning and Instruction Method of Korean History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1, 1-26. The purposes of this study explore the meaning of Korean history education and instruction method of effective Korean history lesson for women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To this end, 12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have learned

www.kci.go.kr

Korean history and have intermediate or higher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m and based on the data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ir purpose of learning Korean history,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Korean history,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Korean history education for them were examined. Firstly,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tended to perceive the study of Korean history as a means to naturally adapt to Korean society and have a successful job. Secondly, strategies that are currently used to effectively teach history to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clude: providing abundant visual materials based on interesting stories such as movies, dramas, cartoons, and photographs; explaining Korean history through comparison with the history of the participants' home country; and directly visiting historical sites. Lastly, the results show that a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learned Korean history, they became more deeply sympathetic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sentiments and culture of Korean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history educ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and interpretative nature of historical knowledge, getting out of assimilationist and monocultural perspective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ed to expand history education to various minority learner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History Education, Korean History Teaching Strategies, Minority Learners, Multicultural Education

www.kci.go.kr

1. 들어가기

역사교육은 이미 다양한 현장연구와 이론연구를 통해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역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 이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역사를 배운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므로 역사를 학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곽희정 2021)[3].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이나 자녀교육,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

1) 2021년 8월 기준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160,056여 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이고, 2012년(46,954명) 조사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교육기본통계).

2) 2021년 6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168,578명으로 파악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137,878명으로 전체의 81.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31,308명으로 18.6%에 불과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35.4%, 베트남 25.5%, 일본 8.8%, 필리핀 7.1% 순으로 많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1년 6월).

3)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이주배경학습자로 통칭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로 한국역사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 중에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한국역사를 배운다. 문제는 방대한 학습량과 어려운 학습 용어로 인해 한국역사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다. 양은아 외(2018)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배경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역사·문학·철학 등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학생의 경우에는 '저 한국사 때문에 죽을 뻔 했어요', '같은 문장을 이해할 때 한국인이 한 번 읽으면 우리는 다섯 번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사의 경우에는 열 번 정도 읽어야 돼요'라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사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은혜경(2018)은 이주배경학습자들이 낯설어 하는 한국역사나 문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세계사 등과 관련된 과목을 '이주배경학습자를 위한 예비대학 과정 등과 같은 비학위 과정을 만들어 사전에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주배경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진학하여 교양과목을 수강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한국역사를 배우고 싶으나 높은 학습장벽으로 인해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이주배경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의 목표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역사교육의 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구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곽희정(2017; 2019; 2020)은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안한 연구도 있다(문형진 2013; 함윤주 2019).

www.kci.go.kr

뿐만 아니라 진대연(2015; 2018)은 역사문화가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교육의 방안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주배경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수전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거나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춘 역사문화교육의 방안에 관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주배경학습자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을 한국역사와 문화 공부를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역사 수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식과 그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와 생리적·심리적 필요나 흥미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일반적인 한국 출신 학생들과 다른 특징을 지닌 이주배경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주배경학습자 중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몰도바, 볼리비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한국인과는 한국사를 배우는 목적과 어려움이 다를 것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한국사 교육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사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사 교육이 갖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효과적인 한국사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다문화언어강사와 다문화이해교육강사, 통·번역사,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12명의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들의 출신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몽골·볼리비아·몰도바·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하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에 기재된 연구 참여자 정보는 연구 시작 시기인 2021년 9월 기준이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www.kci.go.kr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2021년 9월 기준)

이름	출신국	이주기간	국적	학력	한국어 능력
이금희	중국	15년	중국	박사졸	TOPIK 6급
문리	중국	15년	중국	석사졸	TOPIK 6급
디엠	인도네시아	21년	한국	대졸	TOPIK 5급
박율	몰도바	10년	한국	고졸	TOPIK 4급
이수연	캄보디아	11년	한국	고졸	TOPIK 4급
체첵	몽골	4년	몽골	대졸	TOPIK 4급
박비	태국	22년	한국	대졸	TOPIK 6급
이혜경	베트남	10년	한국	고졸	TOPIK 5급
서희	우즈벡	11년	우즈벡	고졸	TOPIK 4급
김미선	북한	2년	한국	고졸	TOPIK 6급
산드라	볼리비아	15년	한국	대학중퇴	TOPIK 4급
김지원	베트남	14년	한국	고졸	TOPIK 4급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을 가능한 한 골고루 포함하고자 하였다. 출신국마다 한국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다를 수 있고, 선호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필자가 중도입국청소년이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초급 수준으로는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다문화연구원, 다문화이해교육강사나 다문화언어강사, 통·번역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귀화시험이나 검정고시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시험 준비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를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필자의 위치성

www.kci.go.kr

(positionality) 역시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2년부터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해 왔고, 2014년부터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강사교육과 통·번역사양성교육 등을 줄곧 진행해 왔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나라 출신들의 결혼이주여성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친분을 매개로 이 연구의 참여에 흔쾌히 응해주었다. 필자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역사를 배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더구나 한국어 능력 4급 이상으로 직업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표 1>에 제시한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2.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이전부터 한국사를 배워왔다.

심층면담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개별면담 각 1회와 그룹면담(Focus group interview) 1회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코로나 19 상황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층면담은 질문지를 활용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필자는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역사를 배우는 목적과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 면에서 변화된 점, 효

www.kci.go.kr

과적인 한국사 교수학습 방안, 기억에 남는 역사적 내용, 모국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만들어서 활용하였다. 첫 번째 개별 면담 시간은 각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이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나 SNS,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질문하고 수집하였다. 두 번째 면담은 그룹면담으로 연구 참여자 중 5명(베트남 김지원, 캄보디아 이수연, 우즈베키스탄 서희, 몰도바 박율, 몽골 체첵)이 참여하여 1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4] 결혼이주여성과의 심층면담 자료는 이들의 동의하에 녹화하였고, 녹음된 면담 자료는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화한 뒤, 다시 청취하면서 수정하였다. 그리고 항시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전사자료 검토를 되풀이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주제를 도출하였고(Corbin & Strauss, 2008), 발견된 패턴과 주제를 다시 전사 자료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대한 삼각 검증 차원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주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자를 본 연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였다(Patton, 1999).

4) 그룹면담은 2021년 10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12명 중 그룹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결혼이주여성은 아쉽게도 5명이었다. 이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그룹면담이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www.kci.go.kr

3. 연구 결과

3.1. 한국사 학습의 목적

백은진(2015)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한국인으로서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대체로 한국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그 자체로 학문의 본질적이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3.1.1. 자녀교육과 한국어 능력향상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역사를 왜 배우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이들은 대체로 자녀교육과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답변하였다.

> “아이를 위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캄보디아-이수연)
> “아이들을 키우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볼리비아-산드라)
> “전 이미 귀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한국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역사를 배우는데 아이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역사적 내용을 잘 알면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하구요.”(태국-박비)
>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베트남-김지원)
> “한국역사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어휘 능력이 향상돼요.”(몰도바-박율)

www.kci.go.kr

이상의 답변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와 소통하고 싶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국사를 배우고 싶다는 답변에서 이들의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사를 배울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진대연(2015)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사 교육은 언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의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사를 학습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료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권화숙(2017)은 언어교육을 언어적 측면에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내용학습과 언어학습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결혼이주여성의 답변을 통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3.1.2. 직업역량 강화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직업을 갖거나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역사를 배울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www.kci.go.kr

"한국에 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베트남-이혜경)
"통역공부를 하다 보니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관련된 역사를 깊이 배우고 싶어졌어요."(우즈베키스탄-서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인도네시아-디엠, 몽골-체첵, 새터민-김미선)
"다문화언어강사로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나 모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후배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태국-박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배우는 것이 유리해요."(베트남-김지원)
"다문화언어강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한국사 과목이에요."(중국-문리)

이상의 답변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를 학습하는 것이 직업 활동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모국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상대국가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문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고,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싶어요" 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한국역사와 문화를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 등을 풀어주어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정착국인 한국과 모국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중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가족과의 소통, 직업역량 강화, 한국어 능력향상, 자녀교육, 한국과 모국 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싶은 목적 등 다양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

www.kci.go.kr

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이 고등교육에 진입하고, 진학 후 기초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5] 연구 참여자 중 베트남 출신의 이혜경과 북한 출신의 김미선의 경우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으로 한국사 학습을 인식하고 있었다.

3.2. 한국사 학습의 장벽

주지하다시피 한국사 학습은 내용의 방대함과 어려운 용어의 나열로 인해서 한국 학생도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다. 하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실제로 곽희정 · 이로미(2021)는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경험 연구에서 한국사 학습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데,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 · 지명 · 사건은 대부분이 한자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한자문화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를 학습하

5)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운데 한국 학교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30.3%, 베트남 26.6%, 태국 25%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진학 의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2019, 여성가족부).

www.kci.go.kr

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을까?

3.2.1. 역사적 개념과 역사 용어 이해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 역사를 학습하는 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사건의 순서, 인물들의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요." (베트남-이혜경, 중국-이금희)
> "고려시대 왕과 조선시대 왕의 이름이 똑같아서 혼란스러워요." (베트남-김지원, 우즈베키스탄-서희)
> "역사 용어와 한국 사람의 이름이 어려워요." (몰도바-박율, 태국-박비)
> "왕의 이름과 시기 구분, 현재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역사 용어, 특히 시대별 각종 제도의 명칭을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인도네시아-디엠)

이상의 답변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역사 용어와 시대적 흐름과 사건 등 기초적인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사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지식은 역사가에 의해 구성된 지식으로 구체적 사실이나 개념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여기서 구체적 사실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실부터 복잡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실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과 고유의 역사 용어를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를 학습하기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의 목표와 적절한 내용선정, 그리고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역사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역사교육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결

www.kci.go.kr

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 학습자에게도 역사교육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즉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내용과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교육과 다문화교육이 만나는 접점이 될 것이다.

3.2.2.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에서 성장하다가 성년기에 입국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이다. 마르텔(2013)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실력이 유창한 이주배경학습자의 경우에도 미국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친숙하지 않은 학습 용어와 배경지식의 부족, 모국에서 배운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적 내용 등으로 인해 역사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모국역사와 연계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해 줄 때 흥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돼요.”(베트남-이혜경)
> “선생님이 인물이나 상황을 흥미롭게 이야기해 주거나 만화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몰도바-유리, 캄보디아-이수연)
>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한 후 모국어로 되어 있는 역사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우즈베키스탄-서희, 몽골-체첵, 중국-이금희)
> “선생님이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거나 모국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면 도움이 돼요.”(중국-문리)
> “만화로 배우거나 드라마로 배울 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풍부하면 배우기가 쉬워요.”(태국-박비)
>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후 내용과 관련된 영화를 찾아서 봐요.”(몽골-체첵)

www.kci.go.kr

이상의 답변을 통해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나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 줄 때 학습 내용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윤영(2019)은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등과 같은 주제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화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됨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앨리슨 & 램 (Allison & Rehm, 2007)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에서 사진, 도표, 만화,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이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수전략임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방안으로는 영화나 드라마, 사진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것도 효과적인 한국사 교육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출신인 디엠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역사 현장을 방문한 것이 역사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중국 출신의 문리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고 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제시하거나 역사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재를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 중에서 학습 부진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학교에서 역사학습 부진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김수미(2015)에 의하면 그는 노력형 학습자인데도 역사 과목에서 학습 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조력할 수 있는 지도

www.kci.go.kr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역사학습 부진 학생은 역사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재를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수미(2015)의 연구는 이주배경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수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체험학습은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한국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역사를 다각도로 학습하고 느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모국에서 역사교육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정착국의 역사교육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 역사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국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살수대첩을 설명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라서 다시 중국 역사책을 찾아서 확인했어요(중국-문리).”,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을 북한에서 침략했다고 배우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준 것으로 배워요(중국-이금희, 새터민-김미선).”처럼 중국이나 북한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모국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종종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는 국가인데,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설명할 때 황당하게 느껴져요(중국-문리).” 등 중국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과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해석과 인식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역사적 내용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수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역사수업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실 수업에 부합한다.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

www.kci.go.kr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은 역사지식의 구성적·해석적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적 진출이나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사 학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3.3. 한국사 학습의 의미

역사를 포함하여 교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그 교과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양호환(2009)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과 사건을 바라보고, 인간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김한종(2007)은 역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사 학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3.3.1. 한국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교양 함양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역사를 배운 후 스스로 변화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베트남-이혜경, 몰도바-박율)
> “인도네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인도네시아-디엠)
> “한국문화를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태국-박비)

www.kci.go.kr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소속감이 생겼고, 한국인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어요."(중국-문리)
"저의 아이가 자라고 살아가야 할 한국이 더욱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중국-이금희)
"영혼이 밥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아이가 성장하면 제일 먼저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새터민-김미선)

이들은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들에게 한국사 교육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 밖에도 "여행을 하거나 박물관에 가는 것이 즐거워 졌어요(우즈베키스탄-서희).", "경복궁 같은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면 역사적인 내용이 생각나요(볼리비아-산드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자주 여행하게 돼요(태국-박비).",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재미있게 느껴져요(중국-문리)." 등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싶고,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역사를 배움으로써 기초적인 상식 습득 및 교양을 갖추게 되어 한국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사회의 특징과 한국인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인과의 소통에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문화를 더 깊이 느끼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사 학습은 정착국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렌즈가 되어 주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교양인으로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3.3.2. 모국역사에 대한 관심 증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역사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습관을 획득할 수 있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 중 다수는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모국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 “볼리비아는 자원도 풍부하고 면적도 10배는 큰데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는지 답답해요.”(볼리비아-산드라)
> “우즈베키스탄은 예전에는 강했고, 훌륭한 인물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지가 속상해요.”(우즈베키스탄-서희)
> “모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캄보디아-이수연)
> “모국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중국-이금희)

이상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모국이 직면한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예전에는 한국보다 부유했으나 현재는 한국에 비해 경제발전이 뒤처져 있는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 등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모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모국역사와 비교하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사를 가르칠 때는 이들의 모국역사와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언어·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국사

www.kci.go.kr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자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배경학습자들의 모국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열등하게 느끼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이상으로 언어·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12명의 결혼이주여성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사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를 학습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사 교육의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이나 자녀교육, 한국어 능력향상, 취업 및 직업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역사를 배우고자 하였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한국역사를 배울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요컨대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역사를 배우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학습 용어와 방대한 학습량으로 인해 한국역사를 학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나마 교사가 풍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하여 흥미롭게 역사적 내용을 알려주거나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과 연계된 역사적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줄 때 역사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직접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만화나 사진 등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공해 줄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문형진(2016)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www.kci.go.kr

역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82%가 한국역사를 더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65%는 한국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학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한국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일부 기관에서 검정고시나 자격증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국사를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대한 학습량과 어려운 학습 용어로 인해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과 한국인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으로써 한국인과 소통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문화를 더 깊이 느끼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모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고, 모국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이나 북한 출신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적 내용과 모국에서 배운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서 종종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볼리비아, 태국, 캄보디아 등은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혼란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지만 모국이 한국에 비해서 경제발전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역사지식의 구성적·해석적 성격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역사적 서술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모국의 현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한국사

www.kci.go.kr

교육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역사를 배움으로써 한국인과 소통하고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역사를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도 거의 부재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배경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덧붙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사는 한국사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에 따른 교수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하고, 사회진출과 성공적인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역사를 배운 경험이 있는 12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사를 심도 있게 배운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확대해서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인 일본이나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교육 분야에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안을 탐색한 것은

www.kci.go.kr

역사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로 인해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배경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국가별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역사교육과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간의 학문적 융합을 시도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곽희정(2017).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교재 개발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10(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24쪽.

곽희정(2019).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교재의 구성 및 체제, <역사와 교육> 28집, 역사와교육학회. 83-110쪽.

곽희정(2020). 한국사 수업에서 공평교수의 실천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573-594쪽.

곽희정 · 이로미(2021).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경험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4(2), 아시아여성연구원. 5-46쪽.

권화숙(2017).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내용중심 한국어 교수학습방안, <새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학회. 119-142쪽.

김수미(2015). 고등학교 역사학습 부진학생의 문항 풀이 과정 분석, <역사교육> 136, 역사교육연구회. 41-84쪽.

김한종(2007).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 함께.

문형진(2013).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방안의 다양성 제고, <역사문화연구> 45, 역사문화연구소. 283-312쪽.

문형진(2016).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 인식 정도와 다양한 교육방안 연구, <중국학논총> 49, 한국중국문화학회.

www.kci.go.kr

143-160쪽.
백은진(2015). 역사학습의 목적과 역사교사의 역사교육 목적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역사교육> 133, 역사교육연구회. 1-40쪽.
은혜경(2018).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853-884쪽.
양은아 · 노일경 · 이혜연(2018).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고등평생교육 지원방안 탐색: 방송대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57-295쪽.
양호환 외(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 함께.
진대연(2015). 한국 문화 교육의 개선을 위한 역사 문화교육과정 시론, <교육문화연구> 21(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1-177쪽.
진대연(2018).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15(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43-270쪽.
함윤주(2019).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 문화 교육 방안,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3),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15-140쪽.
Allison, B.N., & Rehm, M.L.(2007).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for middle school learners in multicultural, multilingual classrooms.* Middle School journal, 39(2), 12-18.
Creswell, J. W.(2015).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London: SAGE Piblications.
Martell, C.C., & Dunne, K.A.(2013). *Teaching America`s Past to Our Newest Americans*, Social Education, 77(4), 192-195.
Martell, C.C.(2018). *Teaching Race in U.S. Histoy: Examin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in a multicultural Urban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 198(1), 65-88.

www.kci.go.kr

Patton, M. Q.(1999). *Enhancing the quality and credibility of qualitative analysis*, Health Services Research, 34(5), 1189-1208.

필자 소개

성　　명 : 곽희정
소　　속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우편번호]04310
전자우편 : jj3kwak@sookmyung.ac.kr

성　　명 : 김옥녀
소　　속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우편번호]04310
전자우편 : emmawelfare@sookmyung.ac.kr

투고일: 2022. 5. 31 / 심사일: 2022. 6. 30 / 심사완료일: 2022. 7. 4

www.kci.go.kr